





전시명
동강 하정웅컬렉션_ 김홍희 사진전
전시유형
전시기간
2013. 07. 16 (화) ~ 2013. 10. 06(일)
전시장소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상설·기획 전시실
휴관일
매주 월요일, 추석, 1월 1일, 설날 휴관
참여작가
김홍희 사진작가
작품수
주최/후원
관람료
전시해설시간

김홍희사진展

KIM HONG HEE

INTO PHOTOGRAPHY

고비사막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GOBI DESERT, MONGOLIA I was unable to see anything



김홍희 #09-18 디지털컬러프린트 200×100cm 2009

2013. 7. 16 tue - 9. 30 mon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김홍희 金弘熙 1959 ~

개인전

- 2006 푸른 방랑 (갤러리 와와)
- 2005 나는 사진이다 (교보갤러리, 서울 / 영광갤러리, 부산 / Naver갤러리 N)
- 2002 방랑 (www.dohwaji.com), 방랑 (포토갤러리 051, 부산)
- 2001 변산(奈良市立寫眞美術館, 日本)
- 1999 세기말 초상 (포토갤러리 051, 부산 / Lux Gallery, 서울 / 古土갤러리, 대구, 예술사랑-효성카톨릭대학부설 화랑, 대구)
- 1996 결혼 시말서 (리베라백화점 갤러리, 부산)
- 1989 동급생 (Tokyo Olympus Gallery, 日本 東京), 동경은 따뜻한 겨울 (Shinjuku Nikon Salon, 日本 東京)
- 1988 아와오토리 사설(寫說) (Visual Arts Gallery, 日本 東京)

기획전

- 2005 1030(부산 MBC 로비), 시간을 베다 (홍대)
- 2004 부산의 시간과 공간 (부산시립미술관)
- 2001 도시와 미술-부산의 시간과 공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일상의 풍경과 기억의 풍경 (부산시립미술관 용두산 전시관)
- 2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6회 차성 문화제,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울산 현대예술관 갤러리)
- 1999 사진 소품전 (포토갤러리 051, 부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삶, 권력, 죽음전 (대안공간 섬, 부산)
99 부산은 사진이다-터전 (부산시청 대전실실 역사관)
- 1998 98 부산은 사진이다-바다전 (리베라백화점 갤러리, 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미술관 개관전 (im.kijang.pusan.kr)
- 199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3회 차성문화제
- 199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2회 차성문화제, 조각과 현대음악과 사진의 만남전 (공간화랑, 부산)

출판물

- 2009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글/사진 김홍희)
- 2008 김홍희 몽골방랑 (글/사진 김홍희)
- 2005 박찬욱의 몽타주(글/박찬욱, 표지사진/김홍희), 박찬욱의 오마주(글/박찬욱, 표지사진/김홍희)
BUSAN 10/30(역음/김홍희), 시간을 베다 (사진/글 사진집단 일우, 역음/김홍희)
나를 쳐라 (글/경허, 사진/김홍희), 방외지사 1,2권 (글/조용현, 사진/김홍희), 나는 사진이다 (글/사진 김홍희)
- 2004 편집자 분투기(글/정은숙, 사진/김홍희), 대화(글/피천득, 김재순, 법정, 최인호, 사진/김홍희)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글/피천득, 역음/김정빈, 사진/김홍희), 암자로 가는 길(글/정찬주, 사진/김홍희)
- 2003 인도기행(글/법정, 사진/김홍희),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글/한강, 사진/김홍희)
대학생활 어떻게 할까(가또 다이조/번역 김홍희)
- 2002 <방랑-사진 산문집> (글/사진 김홍희)
- 2001 예술가로 산다는 것(글/박영택, 사진/김홍희), 바람에 살다 (글/조은, 사진/김홍희)
- 2000 인생은 지나간다 (글/구효서, 사진/김홍희)
- 1999 만행 : 허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글/현각, 사진/김홍희), 세기말 초상 (사진, 글/김홍희)
- 1997 암자로 가는 길(글/정찬주, 사진/김홍희)

연재물

- 2006 부산일보 <문화 칼럼>
- 2004 경륜 <몽골 방랑>
- 2003 부산일보 <풍경이 있는 에세이> 동서문학 <사진이 있는 자리> 기장 사람들 <책이 있는 풍경>
신도시 라이프 <김홍희의 사진으로 읽는 세상>
- 2002 동서문학 <사진이 있는 자리> 기장사람들 <책이 있는 풍경>
- 1998 샘터 <고향 가는 길>
- 1996 중앙일보 <암자로 가는 길>
- 1989 일본 카메라, 아사히 카메라에 작품 소개

다큐 및 강연

- 2013 달빛, 인문학을 말한다/ 부산 동구청
- 2012 예술 나무 포럼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BS 세계테마기행 / 사진작가 김홍희의 인도네시아 자바 섬 방랑

경력

- KBS1 TV '명작스캔들'의 MC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미술관 관장
- 부산일보 독자위원
- 포토갤러리 051 대표
- 동주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

수상

- 2008 니콘 선정 세계의 사진가 20인
- 2000 한국 이미지 메이커 500인, 문예진흥원 한국의 예술선 28인



김홍희 #09-02 디지털컬러프린트 200×100cm 2009



김홍희 #09-03 디지털컬러프린트 200×100cm 2009



김홍희 #09-20 디지털컬러프린트 200×100cm 2009

시간과 공간을 독특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철학이 깃든 사진 작품으로 잘 알려진 김홍희 작가는 부산에서 태어나 1985년 일본 도쿄 비주얼아트에서 포토저널리즘을 전공했다. 니콘 살롱과 올림포스 홀에서 학생신분으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1년 나라(奈那)시립사진미술관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초대전이 개최되었다.

2000년 우리나라 이미지 메이커(500인)이자 문예진흥원에서 선정한 28인이며, 2008년 니콘카메라가 선정한 세계 사진작가 20인 중 한사람이다.

이번 여름전시로 기획한 김홍희 「고비사막_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진전은 작가가 몽골을 여행하면서 현재 널리 실용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lobal Posi

1977년 『암자로 가는 길』과 1999년 『만행 : 하버드에서 화
계사까지』의 사진 작품으로 “좋은 사진이 담긴 멋진 책”이라는
유행과 함께 사진의 중요성을 널리 세상에 알렸다.

2004년 사진동호회 사이트에 “날 때부터 프로냐?”라는 연재글
로 출간한 『나는 사진이다』는 문화관광부 교양부문과 간행물
윤리위원회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MY PHOTO
GRAPHY, MY VOICE』라는 제목으로 영문판이 출간되었다.

tioning System)을 카메라에 장착하고 사막의 위치, 정보 값을
작품 하단 사각박스에 넣어 위도와 경도, 고도와 함께 암갈색의
지층이 드러나게 한 실험 작품으로 몽골방랑에서 “카메라가 그
순간의 느낌을 사실적으로 보존하는 기록성은 어느 한순간이며,
어느 누구도 같은 장면을 보지 못하고, 카메라 셔터가 소리를 내는
순간 자신의 눈으로 실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진 철학을
화두로 던진 예술 작품이다.

김홍희 『몽골방랑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2008 참조

목록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의견저장
사용 가능합
니다.